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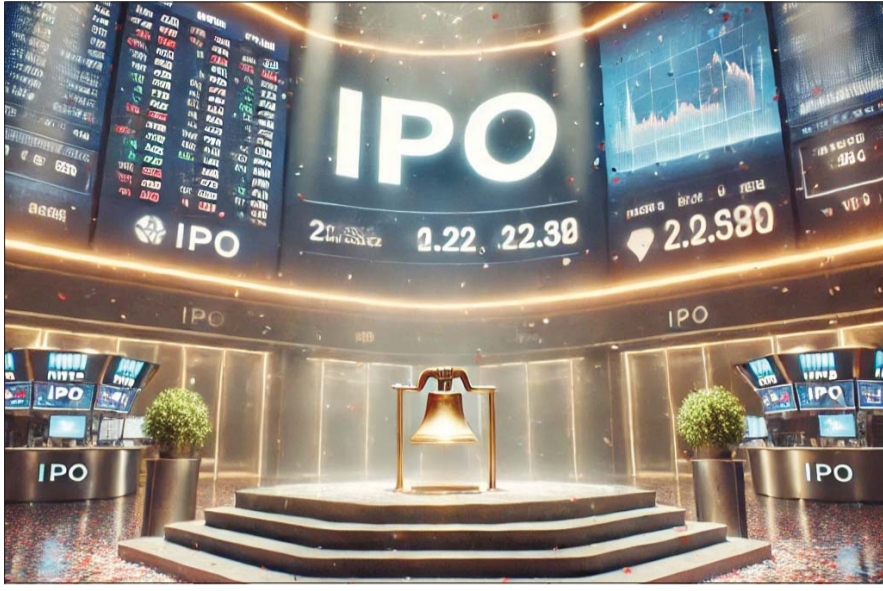
외국인·개미 ‘사자’, 새내기주도 성공적… 국내증시 ‘봄바람’

KRX, 한텍 207%·대진첨단소재 56% 이달 상장 8개 중 6개 공모가 웃돌아 올해 신용거래용자 잔고 2.5조 늘고 외국인 8개월만에 순매수세 돌아서

국내 증시에 봄이 찾아 올 지 관심이 쏠린다. 새내기주는 상장후 공모가를 웃도는 성적을 내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 규모도 18조원으로 뛰어올랐다. 탄핵정국에 위축됐던 외국인 매수세도 살아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장한 8개 종목 가운데 6개 공모가를 웃돌았다.

한텍(207.41%), 대진첨단소재(56.11%), 티엑스알로보틱스(37.70%), 엠디바이스(15.93%) 등은 상장 이후 15~207%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상반기 IPO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서울보증보험 역시 상장 첫날 공모가



Chat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이미지.

대비 23% 오른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날 기준 3만59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약 38%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올해들어 2조5000억원가량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코

스닥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총 18조 284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음을 뜻한다. 국내 증시가 탄핵정국에 휩싸였던 지난 12월 말엔 15조원대로 급감한 바 있다. 외국인은 8개월만에 순매수세로 돌

아섰다. 3월 외국인 순매수액은 20억원으로 많지 않지만,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달 31일에는 공모도가 재개된다. 공모도는 외국인 국내 증시로 불러 모으는 유인이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넘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기업가치보다) 고평가는 공모도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다. 공매도 재개 이전에는 기업의 미래 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고평가인지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증시의 본격 회복 여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판도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달 2일 부과될 상호 관세에 대해 “국가별로 차등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 상호 관세 부과가 압박하면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정치적 리스크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며 “여기에 공매도 재개(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보고서 발표(4월 1일), 상호 관세 부과(4월 2일)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반도체 외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5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라며 “평균 수준(10.2배)만 회복해도 코스피는 2900선 도달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는 반도체, 2차전지, 은행, 보험,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패시브 TDF ETF, 노후준비 윈티켓 솔루션” ‘30억 자사주 매수’ 한화에어로, 7.5%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TDF2045 ETF’ 상장 간담회 ‘자산배분곡선’ 안전자산 비중 점차 확대

“TIGER TDF2045 ETF”는 투명하고 저비용이며, 가장 직관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윈티켓 솔루션(one-ticket solution)입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대표 부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TIGER TDF2045 ETF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오는 25일 해당 상품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TDF ETF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지수 S&P500을 기초지수로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패시브형 TDF ETF로,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 패스·Glide Path)을 적용해 은퇴 시점까지 S&P500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간다.

윤병호 미래에셋운용 전략ETF운용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이 24일 TIGER TDF2045 ETF와 관련해 투자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본부장은 “ETF 시장이 점차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TIGER TDF2045는 ETF의 본질에 충실한 직관적인 은퇴 투자 솔루션”이라며 “S&P500 수익률과 환율만 알면 누구나 자신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고관여(투자 구조에 대해 적극 분석·판단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TDF ETF가 글로벌 자산에 역

브하게 투자해 예측이 어려웠던 반면, 해당 상품은 S&P500과 국내 단기채 중심의 고정 포트폴리오로 생애주기별 자산 배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다. 상장일 기준 79%를 S&P500, 21%를 국내 단기채에 투자하며 2045년까지 매년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운용 보수는 총 0.19%로, 국내 TDF ETF 평균(0.75%)보다 낮다. S&P500은 직접 운용해 별도 보수가 없고, 채권은 초기엔 ETF로 운용하되 규모가 커질 경우 직접 운용으로 전환해 보수를 줄일 계획이다.

TIGER TDF2045 ETF는 적격 TDF로 분류돼 퇴직연금 계좌에 100% 편입이 가능하다. ‘TIGER 미국S&P500 ETF’와 병행 투자 시 연금 계좌 내에서 S&P500에 최대 93%까지 투자할 수 있다. 김 부사장은 “기존 안전자산을 TDF2045로 전환하면 추가 자금 없이도 위험자산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동관 대표이사 “미래성장에 확신 주주와 함께 기업가치 향상 의지 반영”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사진)가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였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7.48% 오른 67만5000원에 마감했다.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이 오히려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 부양 의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략부문 대표이사는 이 회사 주식 약 30억원어치를 매수하기로 했다. 김 부회장은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자사주 매입의 배경”이라며 “주주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은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각각 약 9억원(약 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매입 금액은 지난해 연봉에 해당한다.

김 부회장과 손 대표, 안 사장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다.

다른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지분매수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불안을 잠재웠다는 평가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한 자금은 해외 방산 1조6000억원, 국내 방산 9000억원, 해외 조선 8000억원, 무인기용 엔진 개발 3000억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화 측은 “유럽의 독자 재무장과 미국의 해양방산·조선해양 산업 복원의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22.5억 ‘고속 성장’

지난해 말 대비 약 5.9% 증가

삼성증권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합산한 총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삼성증권의 총 연금 잔고는 22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말(21조3000억원) 대비 약 5.9% 증가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 기간 각

각 5.1%, 9.8% 늘었다. 퇴직연금 전체(DB+DC+IRP) 잔고 기준으로는 5.6% 증가해, 퇴직연금 잔고 1조원 이상인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디플트옵션 수익률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위험군 1개월 수익률에서 ‘삼성증권 디플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가 1위를 차지했다. 저위험군 상품에서도 ‘삼성증권 디플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가 1년 수익률 기준 1위에 올랐다.

삼성증권 연금잔고의 성장을 견인한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다양한 연금 서비스가 꼽힌다. 삼성증권은 2021년 퇴직연금 업계 최초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선보이며 수수료 체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 ‘3분 연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 없고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확인 시간을 제외하면 3분 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은 공식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팜(mPOP)’을 통해 연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 경영진, 자사주 6.7만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약 4.4억 규모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이 약 4억 4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6만 6846주를 매입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섭 부회장은 17일과 18일 자사 보통주와 우선주(2우B)를 각 2만 주씩 장내 매수했다. 총 취득 금액은 약 2억 8000만원이다. 전경남 사장은 보통주 6846주와 우선주(2우B) 2만주를 매수해 약 1억 5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



김미섭 부회장



전경남 사장

한 취지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회사의 핵심 경영진은 주가 부양 및 중장기 성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허선호 부회장이 1억 4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2만주를 매수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